결혼 · 육아 긍정 분위기 조성

전북도, '세계 인구의 날' 맞아 9일까지 문화행사… 청사서 인구 인식개선 공모 수상작 전시회

전북도가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결혼과 출산의 긍정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전북도는 7일부터 9일까지 도 청사에서 도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육아 긍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2021년 전라북도 인구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수상 작품 전시, ▲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고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유명 강사 초청특강으로 진행된다.

전시회 기간 도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전시작품은 영상물과 웹툰 등 총 28편으로, 올해에 실시한 '청년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공모 입상작 15편과 지난해 '어서와~ 전북인' 인구 영상 공모전 입상작 13편이다.

또한, 9일 날에는 '결혼해도 좋아' 책 저자이자 방송인인 이정수(KBS 개그맨)를 초청해 '우리가 몰랐던 결혼의 장점'을 주제로 도내 청년에게 결혼·육아에 대한 행복한 경험담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인구 콘텐츠 전시회는 도청을 방문하는 도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초청특강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전에 시·군을 통해 모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감소 극복은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문화 인식개선도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행사로 인구의 날을 널리 알리고 인구문제에 대해 긍정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지정한 날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불균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우리 정부도 2012년부터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제정했다.

전북도는 7일부터 9일까지 도 청사에서 도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육아 긍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결혼해도 좋아' 책 저자 방송인 이정수 초청 결혼 · 육아 경험담 소개

전북도 역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인식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 인구인식 개선을 위해 청소년-결혼-육아기 등 생애주기별 인구를 주제로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과 도-시·군 인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인구정책 전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배려풀 전북'을 추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해 공공기관을 시범으로 민간기업까지 확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사계의 정취 화폭에 담아

전덕희 개인전 '陽春花談(양춘화담)'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8월 1일까지 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문인화가 전덕희 개인전 '陽春花談(양춘화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덕희 작가는 전라북도 미술대전, 대한민국 해동서예 문인화대전, 전국 율곡 서예대전 등에서 초대작가로 참여하고, 전국 새만금 서예문인화대전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월명서화학회, 예묵회 등을 통해 군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부귀화', '붓꽃' 등 봄의 정취를 담은 자연을 표현한 작품들과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의 풍경을 한지에 담아낸 작품 '봄날의 계곡', '여름날의 추억', '추억속으로', '설경' 등 20점의 문인화 작품을 공개했다. 근대역사박물관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서는 전시관 전경과 작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영상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박물관관리과 관계자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에서는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매년 전시참여자 공개모집을 통해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2021년에는 총5명의 지역작가가 전시 참여자로 선정되어 전덕희 개인전에 이어 서양화, 문인화, 민화 등의 장르에서 활동하는 군산 작가들의 전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군산=남현봉기자

유럽권 태권도 홍보 강화

태권도진흥재단, 불가리아 · 에스토니아 홍보위원장 위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불가리아와 에스토니아 등 유럽권을 대상으로 태권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위원장을 위촉했다.

7일 태권도진흥재단 접견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는 오응환 이사장과 Slavtcho Binev 불가리아 태권도협회장 및 유럽 프로태권도연맹 회장, Kalvo Salmus 에스토니아 프로태권도연맹 회장이 함께했다.

오응환 이사장은 두 사람을 태권도진흥재단의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홍보위원장으로 위촉하며 태권도 활성화 및 태권도원 홍보 등에 대한 역할을 당부했다.

불가리아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불가리아 태권도협회장과 유럽 프로태권도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Slavtcho Binev 홍보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유럽 프로태권도연맹 임원, 선수들과 태권도원을 찾겠다"라며 "태권도를 알릴 수 있는 영상 등을 유럽권 주요 방송에 노출하는 등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국회의원 당시 '한국과의 친선을 위한 모임 회장'을 맡는 등 한국과 태권도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보급과 보존 등 세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며 "2024 파리올림픽을 3년 앞두고 지금부터 유럽 내에 태권도 붐이 조성 되도록 홍보위원장들이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과 함께하는 순회음악회'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매주 토요일 근대역사박물관을 포함한 총 6개 전시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순회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오후 4시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을 시작으로, 17일 근대미술관, 24일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연주회를 개최하며, 8월 중에는 7일 금강미래체험관(구. 금강철새조망대), 8월 14일 3.1운동100주년기념관, 8월 21일 채만식문학관에서 연주회를 열 계획이다.

연주는 관내 커뮤니티오케스트라 단체인 칸투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전세환)에서 무료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다.

칸투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4년 창단한 군산 최초 커뮤니티 오케스트라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모토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수 차례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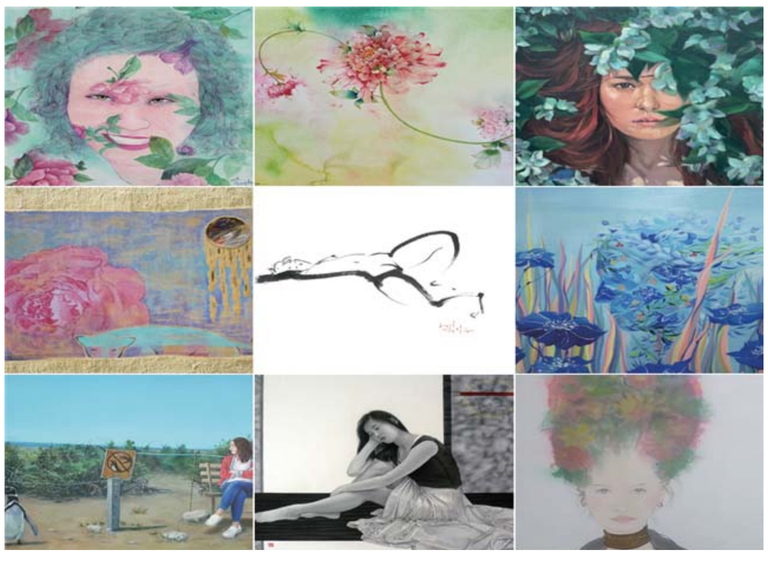
음악회는 하계 휴가철에 어울리는 클래식 소곡 위주의 선곡으로 총 10곡 내외의 연주를 선보이며, 전시관에 입장한 관람객들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로비 등에서 진행한다.

또한 직접 전시관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근대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링크 등을 통한 라이브 중계를 실시하고, 추후 공연 영상을 온라인에서도 공개할 계획이다.

박물관관리과 관계자는 "근대역사박물관 순회 음악회를 통해 코로나 등으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나마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사람에 대한 가치관, 예술적 감수성으로 그려내다

전북도 서울장학숙 복합문화공간 JB 드림 갤러리 '인물작가회 초대전' 전북출신 작가 9명 참여 이달 말까지



전북도서울장학숙(관장 정종복) 복합문화공간 JB Dream Gallery에 전북출신 작가 9명의 초대전이 오는 30일까지 전시된다.

'전북인물작가회'는 사람에 대한 가치관과 의미를 자신만의 방법과 예술적 감수성으로 창조해 내는 작가들로 구성돼 있다.

그간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그 대답을 그림으로 형상해 왔다.

참여작가는 이경례, 이철규, 박상규, 홍경준, 김정아, 권영주, 박선영, 유기준, 진영선 작가로 9명이 총 22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초대 전시는 전북 인재들의 지친 일상에 응원과 격려를 위해 전북 출신의 작가들이 뭉쳤다.

이경례 전북인물작가회장은 "입사생들이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자신의 길을 찾아 가기 위한 재정비의 시간과 함께 작품에 대해 소통하고,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종복 전북도서울장학숙 관장은 "서울장학숙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북의 인재들이 지친 일상에서 미술에 대한 벽을 허물고 쉽게 작품에 다가가 문화향유와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작가와 소통하면서 예술적 소양과 인문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품 전시와 함께 입사생들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특강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북도서울장학숙은 300명의 입사생과 5급 공채를 비롯, 고시 준비생 64명의 전북 지역 인재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으며, 지난 1992년 개관이래 4,600여명의 인재들을 배출해 각계· 각층에서 지역사회에 공헌 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완주 술박물관 소장 희귀 · 귀중본 자료 디지털화

요리연구가 방신영 '만가필비-조선요리제법' · 조선야서교서회 '금주미담' 등 국가 디지털 장서 '코리안 메모리' 로 제공… 국립중앙도서관 지원 공모 선정

완주군(군수 박성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희귀, 귀중본 자료들이 디지털화돼 국가 장서로 구축된다.

7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한 '2021년 문화예술자료 디지털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술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희귀, 귀중본 자료들을 고해상도 이미지로 스캔해 디지털 보정 및 문자 인식(OCR)작업, 국가지식자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과정을 거쳐 국가 디지털 장서 '코리안 메모리'로 제공하게 됐다.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의 디지털화 대상 자료는 요리연구가 방신영이 지은 만가필비(萬家必備)-조선요리제법(1917), 조선야소교서회 발간 금주미담(1923)을 비롯한 1950~60년대 발간 자료 97권이다.

만가필비(萬家必備)-조선요리제법은 최초의 근대식 한국요리도서로 출판 이후 가정주부들의 필수품, 학교교재로 널리 쓰이며 다양한 형태의 증보·개정판이 출간됐다.

금주미담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음주의 폐해를 지적하고 금주 성공사례를 기술한 책이다. 이 책을 발간한 조선야소교서회는 기독교 서적의 출판과 보급을 목적으로 1915년 설립한 단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선정 이유로 "해당 도서들이 그간 확보하지 못했던 미소장 도서들로 원문구축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형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콘텐츠 구축과 온라인을 통한 공유다"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자료의 국가 디지털 장서 구축을 통해 완주군이 보유한 우수한 기록문화유산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